



학생회선거 관련 의식조사 설문결과

학생들, 교육의 질 향상 원해

학생회선거 후보자를 보는 기준으로 서울배움터 학생의 60.7%가, 용인배움터 학생의 50.9%가 후보자의 공약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할 공약으로 양 배움터 공통으로 '교육의 질 향상'과 '각종 복지사업'이 1, 2위를 차지했다.

▶ 관련기사 3면

이 결과는 (외대학보)가 '학생회 선거관련'과 '대생 의식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것으로 서울배움터 106명, 용인배움터 14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특히 서울배움터와 용인배움터 학생들 간의 사견에 대한 다른 의견차가 눈에 띄었다. (그 래프 참조)

총학생회 운영은 단대학생회집단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데 '이 사설을 읽고 회의결과에 대해 들어보셨나'는 질문에 서울배움터는 '처음 들어본다' (50.5%)가, 용인배움터는 '알고 있지만 회의 결과를 들어본 적은 없다' (43.2%)가 가장 많았다. '회의결과를 들어보셨다'고 답한 학생들

은 서울, 용인배움터 각각 21.9%, 20.3%뿐이어서 거의 80%의 학생들이 중운위를 통한 회의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생회 선거 투표의향에 대해서는 '투표하겠다'에 서울 80%, 용인 78.4%의 높은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이 수치는 총학생회 선거 연장투표를 진행했던 작년에 (외대 학보)가 실시한 투표의향 조사(09년 11월 24 자 842호)와 비슷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할 경우 선거후보지 선정 기준에 '공약' (서울 60.7%, 용인 50.9%)이 가장 많았고 다음 '각종 복지사업'에 서울배움터는 '평안' (17.9%)이, 용인배움터는 '도덕성' (17.2%)이 나와 견해차를 보였다. 투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배움터는 '선거 이전 학생회에 대한 실망' (33.3%)이, 용인배움터는 '선거 자체에 관심없다' (50.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용인배움터의 경우 선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는 '선거

자체에 관심없다'와 '누가 되든 상관없다' (34.3%)를 합친 응답자수가 84.3%나 돼 선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 최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할 공약에 대한 질문(복수응답 가능)에는 커리큘럼 개편이나 교수확충 등이 포함된 '교육의 질 향상' (서울 67.6%, 용인 65.9%)이 양배움터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양배움터 공통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각종 복지사업'의 경우 용인배움터는 62.5%의 학생들이 응답해 '교육의 질 향상'만큼 관하는 공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응답부터는 양배움터 차이를 보였다. 서울배움터는 '학생-학생회간 의사소통 활성화' (44.8%), '취업대책' (41.9%), '등록금동결' (37.1%)순으로 나타났고 용인배움터는 '교복정책' (38.5%), '등록금동결' (37.8%), '취업대책' (34.5%)순으로 나타났다.

작성 기자 e2045@hanmail.net

총학생회 선거, 이번주부터 본격화

용인 - 23, 24, 25일(목)

서울 - 23, 24일(수) 투표

선거시즌이 다가왔다. 양배움터 총학생회, 단대, 과 학생회 선거일정이 잡혔다.

▶선거일정표 2면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자 등록마감기간이었던 지난 5일(금) 두 팀이 입후보했다. 기호 1번에는 정후보 정승화(자연·환경 99)군과 부후보 장동섭(아시아아프리카·마틴어 99)군이 입후보했으며 기호 2번에는 정후보 박태웅(경상·경영 99)군과 부후보 박영호(정보산업공·디지털정보공학 99)군이 입후보했다. 이들 두 후보는 오는 8일(화)부터 22일(월)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호 1번 정승화(자연·환경 99) 후보는 "기존의 총학생회가 너무 닫혀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의 의사가 총학생회를 통해 반영이 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자 출마했다"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후보 소감을 밝혔다. 기호 2번 박태웅(경상·경영 99)군은 "외대가 그 지위나 역할, 위상 부분에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특히, 학생들은 자부심을 상실했다. 그동안 근면한 문제를 외면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나서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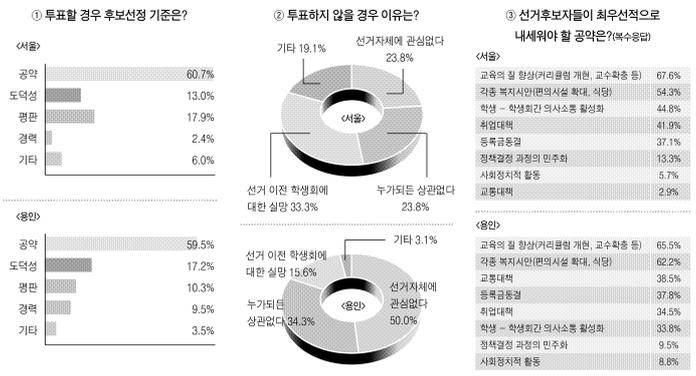


지난 5일(금) 용인배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학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심사하고 있다.

때라고 생각한다"며 "단결을 도모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후보 소감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안종관(서류팀·영어 98) 총학생회장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총학생회 선거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관심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일) 학생회와 알 사거리에 합동유세, 오는 18일(목) 후백관 식당에서 정권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일은 오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이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는 오는 9일, 10일(수) 후보등록을 마치고 이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3일, 24일(수) 이틀간에 걸쳐 투표를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김재복(사범·영어교육 90) 부총학생회장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학생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선공약의 역할"이라며 "경선인 만큼 가결되지 않도록 충실한 임무를 수행해내겠다"고 말했다.

대학부



용인 학생들, "세민전 문제 많았다"

지난달 9일(토) 진행됐던 세계민속문화예술 축전(세민전)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처음으로 예매판이라는 실외공간에서 진행됐던 이번 세민전은 대외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그동안 학내 측에서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대외적 평가와는 달리 학내 여론은 세민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거세게 제기했다.

세민전이 끝난 후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홈페이지(www.ihufan.net)에는 '최악의 세민전'이라고까지 평가됐다.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쇼인조각 문제 △한해관객 동원 실패 △타이켓문제-공인시스템의 유료입장문제 △홍보 부족으로 인한 관객 혼란과 흥분 음식점의 적자 △세민전 지원금비 사용내역 등이다. 흥선원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열린 학내 운영위원회(학운위)에서 이번 세민전에 대해서는, 세민전위원장 김경수(서류팀·영어 98)군과 흥연을 정동환(서류팀·영어 98)군이 학운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출석했으나 이들이 이날 자리에서 흥선원에 제기했던 흥연출의 부적절한 언행과 세민전 전반 운영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함으로써 논란이 부분적으로 봉합됐다.

비용이 8개 팀을 꾸린 한 단대에 제공된 비용과 같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신청과인 중앙아시아어과는 의상을 제작하느라 60만원이 넘는 돈이 들었지만 한 콘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이를 맡아주더라도 무대설치비 4210만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민전위원장 김경수(서류팀·영어 98)군은 "설치비 4210만원은 기본대여료 800만원, 무대설치비 3410만원, 3000석의 좌석에 대한 총 비용으로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며 "처음 위원의 형태로 진행하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다. 앞으로의 세민전을 위해 평가 자료를 제대로 진행해 다음 세민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총학생회장 안종관(서류팀·영어 98)군은 "세민전 위원장과 흥연출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들였으면 한다. 세민전을 예방원에서 개최하면서 문제점들도 여의 있었지만 과거와 예외 수준은 극복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무엇보다도 학내 구성원들이 보의도를 과했다면 좋겠다"며 주관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용인배움터, 금강산 간다

용인배움터 학생 120명이 금강산으로 모교지를 떠나게 된다. 금강산 모교지는 다음달 3일(금)부터 5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금강산 모교지 신청 기한은 오는 12일(금)까지이다. 단대학생회, 총학생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금강산 모교지를 준비하고 있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장은 이대승(인문·사학 00)군은 "봄날이라는 달콤한 학생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모교지 사업이 갖는 의미를 전했다. 용인배움터 금강산 모교지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참가비는 8만5천원이다.

김홍록 기자



이시장 취임 6개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 >3면

김홍록 기자 oedae01@hanmail.net

임명

김형민(경영계열 04)
나래(사회·정행계열 04)
왕시령(서류팀·영어 04)

위 사람을 수습기수로 임명함

외대학보

자키 밥그릇 챙겨먹기

밥 안 챙겨먹고
배고프다고 떼 쓸겁니까?
투표안하고
불평만 늘어놓 겁니까?
권리는 찾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투표합시다.

총학생회 선거일시

- 서울배움터 : 11월 23일, 24일(수)
- 용인배움터 : 11월 23일-25일(목)

민족자주운동 외대학보

하나마나한 학사제도개선

▲학사제도개선이 발표했다. (외대학보) 2면에 실린 개신간기사를 살펴보면 '9·10 교시 신설, 상대평가 강화' 정도가 새로이 결정된 내용이다. 이것도 몇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뒤, 진행한다고 한다. 이 개편인 결과가 학사제도 개편의 목적이 부합하느냐는 논의는 차치해 두자. 장구 행정절차를 거쳐두고 '학사제도 개신위원회'를 만들어 6개월동안 논의한 총체가 이 정도지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차다. 위원회가 고민한 내용들은 실용의국어 개편, 졸업시험, 전과제도, 상대평가를 국한했고 학생들의 관심사였던 커리큘럼 개편과 내실화에 대한 논의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여과가 두드러진 제도개신하기가 어려웠다'는 기획조정처 관계자에 말에 이르러서는 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한다.

▲이 결과는 학사제도 개신안 논의가 시작될 즈음부터 미리 예고된 일일지도 모른다. 학사제도 개신의 필요성이 정밀조정을 반대하는 하나의 논리로 제기됐고, 여기에 대학한국이 부러바라 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논의 주체도 교수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고 학사제도의 주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은 애초부터 계획이 없었다.

▲우리는 학사제도 개신을 논의할 때부터 이를 주시했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발표된 수준으로 학사제도를 고민해서는 구성원들의 목표인 학교의 질적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한국은 먼저 교육의 주 당사자인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자세부터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학사제도개선의 첫걸음이다. 위원회의 학과와 교수의 설문결과를 학사제도를 개편하기에는 우리의 처지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교육부장

공영재단 출범에 따라 한승헌 이사장이 취임한지도 6개월이 지났다. <위대학보>는 한승헌 이사장 취임 6개월을 맞아, 그간 이사회의 활동과 앞으로 이사회의 역할사بل, 논란이 일고 있는 학내문제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을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4월(목) 이사장실에서 진행했다. 편집자

취임 6개월 맞이한 한승헌 이사장 인터뷰

‘적법절차 확립’을 기준으로 학교운영 해나갈 것



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임시이사체제의 한계 때문이었다는 물 라도 법인과 학교의 권능이 혼동되기도 했다. 또 한 각종 관계법령과 정관에 충실하지 못한 업무 집행도 있었다. 앞으로는 적법성의 확립 내지 절차적 정당성에 기본을 두고 법인과 학교를 운영 해 나갈 것이다.

학교발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의는 어느 대학보다 크 다. 이사회가 생각하는 학교발전의 비전은 무엇이었 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법인과 학교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진단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했다. 진단결과와 학교구 성원들에게 공개하여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는 10월에 설명회를 연다. 현재 이사회 안에 4 인위원회를 두어 업무진단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조치를 검토, 입안 중에 있다. 종합적인 방안은 법인과 학교가 병행 입안하겠으나, 최종적인 것은 이사회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이다. 종합적인 방안 은 늦어도 2005년도 2학기까지 정하는 확정이요 라고 한다.

우리학교 재단법인금은 평균 6억 남짓하다. 부족한 재 단법인금도 학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중에 하나인데, 전담금 확보에 대한 이사회의 고민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전입금 현황을 보면 부족한 느낌이 많 다. 재단이 운영의 모체인 이상, 되도록 많은 전 입금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 수이사법체 중 외대어언이 수익사 업으로서 가능성이 상당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들 안은 외대어언학과 학교사이엔에 관련한 협력관계 과 이뤄지지 않아 조금 저조한 상태였지만 최근 에 법인이 나서서 양면의 의견을 취합하고 양면 의 생산적인 대화를 성공시켰다. 연내에 외대어언 을 정상화시키는 획기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수익을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 익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방안도 수립하는 대로 학내구성원들에게 알려드리겠다.

학내 준비를 맡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육박하는 임 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비정규직 신분이다. 더 구나 이들은 우리학교 수이사법체인 동원인정시스템에 소속돼 있는데, 학교가 이런 수이사법체 운영에 있어 그에 대해 노동조합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 이사회의 입장을 말해달라

동원인정시스템은 묘한 사안이다. 비정규직 문 제를 말하기 전에 동원인정시스템에서 일하는 직 원들이 대단히 열악한 보수를 받고 고생하고 있

다. 확정지시는 안했지만 나는 우선 동원인정시스 템을 통한 법인의 수익이 줄더라도 거기서 일하 는 분들의 급여를 개선해서 처우를 조금 높여주 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에는 아마 이 사들도 다 공감할 것이다. 전체적인 업무진단 결 과를 가지고 업무개선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포 함시킬 것이다.

회계법인 감사결과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시급한 과제가 많다. 기술사문제, 외대어언 정상 화문제, 인사사문제, 외교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문제 등이 시급하다.

기술사 문제, 수익계약 문제 가장 큰 것인가

업무진단 발표 때 언급된다. 널리 공개하기는 조심스런 문제다.

학생회와 노동조합의 중심으로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 정을 위해 대학발전위원회를 운영해주시는 방안이 제기되 고 있다. 대학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학발전위원회는 학내 논의와 별개로 교육부가 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 인, 학부모, 동문, 사회 자립인사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평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교원 학회기구 문제는 다른 학교의 예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해달라

과거에는 설립자측과 맞서는 과정에서 투쟁이란 것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만큼 학교가 발전했 는데, 정이사체제가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대결 투쟁적인 그런 용어들을 서로 자 제하고 한 목표를 향해 동행하는 동행자의 마음 가짐으로 비관하면 좋겠다. 우리학교 관선이사 과전 혁신안이 정상화해서 다른 사학과 교육부의 주축 받고 있다. 주목하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성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 고 비판도 해주시고 칭찬해달라는 말씀드리겠다.

학교운영의 공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법인 이사 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합의제의 분절을 살펴 나갈 것이다. 이사장직은 비록 한시적인 직분이긴 하지만 기간 동안 외대 여러분과 일체감을 갖고 일 해 나가겠다. 나는 친자식보다도 더 효도 잘하는 양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글 - 김용훈 기자 사진 - 박은정 기자

학생회 선거본부, 다른 학교는? 연세대 세르고칭 선거본부

위원회 중심으로 사업 펼칠 것

연세대 '세르고칭 15' 선거본부(새 로고칭) 정책팀 조성주군은 학생회 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선선 전 전망이었던 '새학생들' 때 실시 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학 생회는 연세대에게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연세대 741명을 대상으로 실 시했던 이 설문은 통해 조성주군은 "학생들은 학생회의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의 민주적인 과정을 원한다 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런 학 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구조 적 방안으로 세르고칭은 위원회 중 심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조성주군은 위원회 중심의 사업에 대해 "총학생회 집행부에 집중했던 권한을 위원회를 통해 다원화하고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 다. 세르고칭이 준비하고 있는 위원 회는 총 3개다. 특별, 상설, 일반위원 회가 그것. 특별위원회는 사기법률 의결을 수렴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

다. 예를 들어 교내에 비리가 터졌다 면 비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되는 식 이다. 상설위원회는 단기간이 아닌 1 년정도 꾸준한 활동이 필요한 사안 을 대상으로 구성된다. 한 예로 등록 금면제와 수업료 확보를 위한 교육 위원회나 학생복지위원회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일반위원회는 자치단 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총학 은 이 위원회의 재정과 장비 지원을 도와주게 된다. 이들 위원회는 최종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성되 며 "총학생회는 위원회를 지원, 관리 하면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조성주 군은 설명했다.

한편 이들이 준비하는 모습이 얼 마나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을지는 오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있 는 연세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평가 될 전망이다. 박은정 기자

학내단신

문화콘텐츠학, 사업과제 다나

우리학교 신학원역안 인문학과(문화콘텐츠학 연계전공)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한 우리문화위원회의 디지털콘텐츠학 사업공모에서 '고려인 140 년 이주개척사'를 소재로 한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라는 주제로 연세대, 삼익관대 등 2개 단체를 제치고 선정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 1월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헬스' 무에 태권의 디지털 콘텐츠화:시리우 및 동작 리스스 개발'이라는 주제로 선정된 것이 이어 두 번째 성과지만 학부 연계공모 문화콘텐츠학과가 이번 학기 신설된 것을 고려 했을 때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연구팀 책임교수인 임영호교수(문화콘텐츠학, 사법학과)는 "이번 선정이 갖는 의미는 그동안 외대가 쌓아온 업적을 디지털 콘텐츠화 하는 첫 걸음이다. 앞으로 우리대학의 지역연구와 국제지역대학원의 연구 역시 디지털 콘 텐츠화해서 문화사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디지털 콘텐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군단·사법고시반 자리 옮긴다

학군단이 다음달 15일, 16일(목) 출판부 2층과 대학원 지하 1층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학군단 건물 자리에 법대 단독동을 신축이 결정됨에 따라 자리를 비워주게 된 것이다. 학군사법고시반들의 군장과 개인용품은 보관할 장소와 ROTC 참여원칙은 대학원 지하 1층으로, 학군단 행정지원부는 출판부 2 층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출판부 2층에 대한 리모델링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며 대학원 지하 1층은 이번 학기가 끝난 후부터 사용하게 된다.

한편 학군단 건물을 같이 썼던 사법고시반은 연수원 4층 4호 개인건물 2, 3, 4층을 임대하여 사용한다.

발전위원회, 선거 후보단에 공동성명서 제안

우리학교 발전위원회가 다가오는 학생회 선거기간동안 각 선거 후보단에 공 동 성명서를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공동 성명서는 △미군의 이라크 철수 △과 범 한국군 철수 △과범 연장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제안하며 총학생회 선거 후보단 뿐 아니라 각 당내 및 과학생회 후보단에게도 제안될 예정이다.

I.S.O MOVIE NIGHT

- 11월 12일 금요일 5시 30분 / 시청각 교육원 209호 -



“용평의 여인들” (8 Femmes)

▶장르: 코미디, 뮤지컬 / 상영 시간: 105분
▶제작 년도: 2001 / 감독: 프랑소와 오종

셋! 그녀들의 비밀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하룻밤의 스캔들!
그녀들의 아침이 우아하게 망가진다!
눈 내리는 겨울 밤.
그 남자의 방에 여덟 명의 여자들이 다녔다.
등에 같이 꽃인 채 죽어 있는 남자.
법인은 누구?!

· 2002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 개인 예술 공헌상 수상

“판타스틱 플래닛” (La Planète Sauvage)

▶장르: 애니메이션, SF / 상영 시간: 72분
▶제작 년도: 1973 / 감독: 르네 할루

푸른 거인이 지배하는 환상의 별에서
이제 놀라운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진다!
푸른 거인이 인간을 노리게 삼는
환상의 별 이야기
황폐해져가는 인류 문명에 대한 우화

· 제26회 칸느 영화제 심사 위원 특별상 수상
· 제11회 Trieste SF페스티벌 심사 위원상 수상



4.5

2004년 11월 9일 858호

주제 기획

학생들, 용인배움터 학생식당을 평하다

“학생식당?”

차라리 굶고 말지...”

용인배움터 내 먹거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용인배움터 후복관 학생식당이 지난 9월, 올 하반기부터 C.I.로 인계 후 학생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생 식당에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식사의 질”이다. 생활 협동조합의 설문 결과는 학생들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식에 대해 학생들은 “고기가 딱딱하고 양이 적다”, “느끼하고 맛이 없다”고 평했으며, 정식은 “반찬이 싱겁고 맛이 없

다”는 평가를 내렸다. 평소 학교 식당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창환(인문·사회 01)은 “정식의 경우 대부분이 싱겁고 생각한다. 세 가지 반찬 가운데 두 가지가 무생채, 깍두기류”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학생식당이 너무 맛이 없어 저녁을 매일같이 분식으로 때우고 있는 경우도 생겼다. 왕서연(사류·영양 04)은 “학교에 다니면서 먹는 것이 가장 고충이다. 저녁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 끼에 1800원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질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 특히 국같은 경우는 한번 우려낸 육수에 건더기 종류만 바뀌어 끓인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이다”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학생식당이 너무 맛이 없어 저녁을 매일같이 분식으로 때우고 있는 경우도 생겼다. 왕서연(사류·영양 04)은 “학교에 다니면서 먹는 것이 가장 고충이다. 저녁의 경우

는 아예 분식으로 때우든지 과자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학생식당에 대한 불만은 비싼 값을 주고 학교 안 식당을 이용하도록 만들었다. 설문 결과, 용인배움터 50.8%의 학생들이 학교 안 식당을 이용하는 이유로 “학교 식당이 맛이 없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한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용인배움터 안 식당의 물가는 여느 대학가 식당의 물가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학교 안 식당들이 ‘모형식당’



합의’를 통해 물가를 인상하고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 식당들의 위생문제에는 이미 적신초가 켜진 상태이다. 지난 달 18일(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는 “최근에 학교 안 식당에서 발매가 나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시켰는데 또 별맛이 나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론했다. “참신”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이 학생은 “모형 식당에 대한 총학 차원

의 무평이 필요하다”고까지 강조했다. 학교 안 식당의 배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스튜디오 A회장 구원우(사류·영양 00)은 “방중에 학교 안 식당에 주문을 했는데 식당에서 너무나 서로 짜증나게 시키지 말라며 주문을 거부한 적도 있었다”며 L식당에 대해 인디 운동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주제기획팀 oedaeppress@han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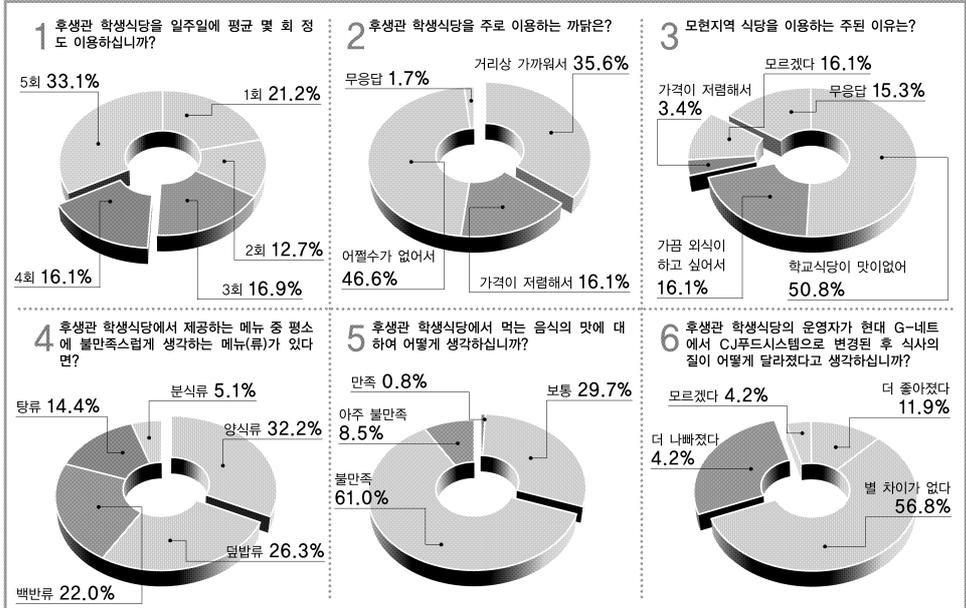
46.6%, 후복관 학생식당 “어쩔수 없어 이용한다”

식사의 질, 오히려 악화됐다

용인배움터 학생들의 46.6%가 후복관 학생식당 이용 까닭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용한다’는 것이 생활협동조합이 용인배움터 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설문결과 학생들의 후복관 학생식당의 이용빈도는 일주일에 5회가 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회가 21.2%를 차지해 ‘어쩔 수 없어서’ 이용한다는 응답을 반증했다. 또한, 학교 안 식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과반수가 넘는 50.8%의 학생들이 ‘학교 식당이 맛이 없어서’라고 응답해 후복관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학생식당의 질이 학교 안 식당의 물가인상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학생식당에서 제공하는 세부메뉴 가운데 학생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은 국(탕)으로 52.9%의 학생들이 ‘맛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찬의 양에 대해서도 43.2%의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먹는 메뉴인 백반류(33.1%)의 식사 질 개선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학생들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메뉴로는 양식(32.2%)으로 그 이유로 메인 메뉴의 ‘양 부족’(35.6%), 셀러드나 수프의 ‘난조롭고 부족함’(54.2%)을 꼽았다. 또한, 61%의 학생들이 후복관 학생식당의 메뉴가 너무 단조롭다라고 응답해 앞으로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필요함을 전했다. 한편, 스캔바스르 인해 저녁식사 이용자가 감소할을 이유로 시간을 오후 7시 20분에서 7시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가장 많은 31.4%가 ‘더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새로이 학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I.푸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더 좋아졌다’(11.9%)에 비해 ‘더 나빠졌다’(27.1%)라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나빠진다’, ‘백반의 반찬이 2가지로 줄었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맛있는 국과 반찬을’ 등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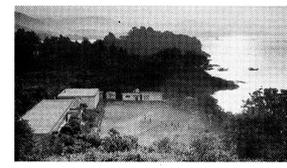
김윤환 기자
oeda01@hannmail.net



Future

더 높은 곳에서,
아이들의 큰 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얼굴 가득 커다란 미래의 꿈을 담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 끝에 닿도록
아이들이 더 큰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두 팔 가득 꿈을 담아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선생님처럼
포스코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posco
스리엠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kr

도서관에 도난방지 CCTV 설치해야 하나?

CCTV설치로 소유권 침해 막아야

고등학교 때 배운 도서관이 발생하면 담당생원은 "전물생성(物物生心)"이라고 해서 도둑보다는 읽어버린 학생을 나무랐었다. 물론 그걸 가지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쪽의 잘못이 더 크다는 말은 옳았다.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을 방화하기 위해서 교실 뒤편의 사람들에게 항상 커터날 자물쇠를 채워두곤 했다. 이중, 삼중으로 채워진 자물쇠를 확인하고서야 안심하고 자리를 틀 수 있었다.

건물생성도 건물생성이지만 요즘 도서관에 들면 '도둑 집'을 직업으로 삼으신 분이 황시 때 같이 건 안까지 왔다. 예전에는 지갑만 훔쳐간 것에서 이제는 노트북 대당해져가 방목로 혹은 노트북까지 훔쳐가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2시간 할당받아야 하는 도서관에서 내물건을 훔쳐간 놈(!)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도둑들을 향해 성토의 목소리를 높여도 도서관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이젠 아예 CCTV를 도서관 내에 설치하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서관 내 생활이 위협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을 부작용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당장 나의 소유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CCTV 설치를 적극 찬성하게 만든다.

CCTV 설치여부 논란이 계속된다면 4층 탐라실내(리더)로 우선 설치하지고 그 결과를 설치하지 5층 탐라실과 비교하여 보고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CCTV 확대 설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닐까. 결론이든 생각이든 그에 맞게 할 가장 좋은 수는 '생심'의 현상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주는 것이 아닐까?

주지현
(법·법학 01)

도서관 CCTV설치 신중해야...

도서관에 가면 느끼지만 언제나 자신의 분신들을 둘러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판에 붙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현재의 일만이 아니라 내가 세내되었던 00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반복되고있던 문제가 아니로 싶다. 이러한 분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CCTV설치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CCTV문제에 그 설치 이전과 그 효용성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소유권 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소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배출된 도서관에 도둑이 급증하면서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과 '소유권 보호'를 위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소 논란이 되고 있다.

권자

도서관 CCTV설치에 이미 인권과 연계되어 있는 이슈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려사항은 자칫 "CCTV만능주의"로 흐를 우려이다. CCTV가 어느 정도 각종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례로 실금 거리에 설치한 CCTV가 어느 정도 범죄 발생율을 낮추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만일 설치 이후에도 분신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만인을 잡지 못한다면 그 때는 이러한 대안을 설치할 수 없겠지 못한다. 따라서 CCTV설치에 앞서 학습자의 의견을 폭넓고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1985년이라는 소설을 보면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등장한다. 이는 감시와 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만일 사자에 충분한 준비없이 CCTV 설치를 강행한다면 결과적으로 도서관 내에 또 하나의 빅 브라더(Big Brother)를 키우는 게 아닐까?

조영준
(사양·서번아어 00)

외대학보 867호 평론

사회기회, 문제에 대한 이해 높여

지난 867호는 책임이 있는 구성이 제일 눈에 띄었다. 주된 내용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주된 내용으로는 866호부터 이어진 총학생회 평가와 북한인권위원회에 대한 내용, 세제비 특징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선 총학생회 평가부분은 1면에서의 도로로 보여준 설문조사결과와 학습유이 보기에 편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윤인 총학생회와의 인터뷰와 학이수수를 정리한 것은 총학생회 평가가 더욱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약이행경도의 확인에 그런 단순한 평가는 측면이 좀 아쉽다. 평가와 함께 학습유이 바라는 총학생회의 모습이나 더 하고요 모범사례를 함께 언택했다면 좋았을 수도 있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북한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1면의 글로 관심을 유발한 후, 이번 주에 더 유망한 신 강경구 교수와의 인터뷰와 직접 북한에 다녀온 이창기씨의 기고글로 잘 마무리 수 있는 북한인권위원회의 현황,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유이의 찬반논쟁으로 이에 대한 여론도 소개해 준 것은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라는 데에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진한 에티켓 모드, 부정행위 그만두자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개성있는 디자인과 성능, 벨소리까지. 핸드폰에 대해 잘 알고 독학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일 갈수록 더되고되고 변해가는 '기' 중 '부정행위', 소위 말해 난리를 목격하는 일이었다. 이왕이 어찌됐건, 동기가 무엇인지 시험 중 부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인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정직하게 공부하고 시험 본 다음에 상대적 보람감을 느껴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악기 갈수록 더되고되고 노력의 산물까지 가로막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직하게 공부하고 시험 본 다음에 상대적 보람감을 느껴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악기 갈수록 더되고되고 노력의 산물까지 가로막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직하게 공부하고 시험 본 다음에 상대적 보람감을 느껴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악기 갈수록 더되고되고 노력의 산물까지 가로막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개성있는 디자인과 성능, 벨소리까지. 핸드폰에 대해 잘 알고 독학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일 갈수록 더되고되고 변해가는 '기' 중 '부정행위', 소위 말해 난리를 목격하는 일이었다. 이왕이 어찌됐건, 동기가 무엇인지 시험 중 부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인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정직하게 공부하고 시험 본 다음에 상대적 보람감을 느껴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악기 갈수록 더되고되고 노력의 산물까지 가로막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핸드폰. 개성있는 디자인과 성능, 벨소리까지. 핸드폰에 대해 잘 알고 독학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일 갈수록 더되고되고 변해가는 '기' 중 '부정행위', 소위 말해 난리를 목격하는 일이었다. 이왕이 어찌됐건, 동기가 무엇인지 시험 중 부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용인 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정직하게 공부하고 시험 본 다음에 상대적 보람감을 느껴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악기 갈수록 더되고되고 노력의 산물까지 가로막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김혜연 (사육생·서번아어 08) 이도운 (법·법학 00)

면수당

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현재의 탐욕을 엿보다



이호중 교수 (법학)

관습헌법위반!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논거이다.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관습헌법이라는 논리 속에는 '법치주의적 정당성과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관계'에 대한 현재의 오해, 그보다 아주 위대한 오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정치와 법규정이 위헌하는 헌법적 영역에서 정치적인 것과 법적인 것이 구분되는 지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서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작동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 일정한 틀을 설정해 주는 기능을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의 틀 속에서 자율적 정책결정을 추구하는 정치의 공동의 틀을 형성한다. 정치와 정책은 공론의 장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한...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헌제가 정체의 요청을 저버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스스로 심판하고자 하는 탐욕을 드러낸 개념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훼손한다. 첫째, 헌법제정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헌법규범의 정당성은 그 제(개)정절차의 민주주의성에서 나온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은 헌법의 민주주의적 정당성 기초를 무너뜨린다. 둘째,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재의 민주주의적 자율성이 작동하는 정치의 영역에 깊숙이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다. 법치주의의 관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정치는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국가정책을 조율하고 결정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끌어오는 것은 정치의 민주주의적 자율성과 정당성 확보의 배기니즘을 침범,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자율성에 대한 헌법의 개입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을 정치외교로 만들어버린다.

200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졸업시험 기간 및 졸업논문 제출 일정

2004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졸업시험 기간 및 졸업논문 제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이 래 -

1. 자 격
· 현재 3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자

2. 졸업시험 대상 대학 및 학과
· 영서대, 서경대, 동양대, 명지대, 배화대, 상명대(무역학부), 사범대(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 독일어교육과)
가. 졸업시험 기간: 제 1전공 - 2004. 11. 15(화) - 11. 16(수)
제 2전공 - 2004. 11. 22(화) - 11. 23(수)
나. 졸업시험처: 소속 학과에서
다. 졸업시험 응시처: 접수 마감일: 2004. 11. 8(월)
라. 졸업시험 응시처: 교무처 1층 100호(행정학과 학과실)
마. 졸업시험 시간표: 2004. 11. 15(수) 소속대학에서

3. 졸업논문 심사대학 대학 및 학과
· 사회과학대(경영학, 언론정보학부), 상명대(경제학과, 경영학부), 사범대(한국어교육과)

4. 유의 사항
가. 졸업논문 심사제 통과한 자는 졸업 시까지 그 자격이 유효함.
(단, 학칙을 상정한 때에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나. 제2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도 본 규정을 준용함.
다. 졸업논문은 2004학년도 100회 이상 출석하여야 함.
라.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시 학생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할 것.

2004. 11. 9
교 무 처

200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일정

200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이 래 -

1. 자 격
· 공고일 현재 3학년 이상 재학중인 학생

2.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접수 마감일
· 2004. 11. 8(월)

3.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교부 및 제출처
· 소속 학과장실

4. 졸업논문 대상 대학 및 학과
· 사회과학대(경영학, 언론정보학부), 상명대(경제학과, 경영학부), 사범대(한국어교육과)

5. 유의 사항
가. 졸업논문 심사제 통과한 자는 졸업 시까지 그 자격이 유효함.
(단, 학칙을 상정한 때에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나. 제2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도 본 규정을 준용함.
다. 졸업논문은 2004학년도 100회 이상 출석하여야 함.
라.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시 학생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할 것.

2004. 11. 9
교 무 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RA(Resident Advisor) 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근무할 RA(Resident Advisor)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기숙사 Coordinator 및 RA (Resident Advisor)
2. 모집인원: coordinator 1명, RA 00명
3. 근무처: 한국외대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용인캠퍼스 소재)
4. 응시자격
가. 영어 사용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영어 4급(영역)에 합격한 자
라. 신체 건강하고 통용어를 가진 자
마. 석사이상 학위 취득자 (coordinator 지원자에 한함)

5. 주요업무
가. 시간별 업무 내용

시 간	업 무	비 고
21:00 ~ 21:30	기숙사 check in 확인	
PM 21:30 ~ 23:20	Group Meeting	free talking 지도
23:30	취침준비 확인 및 건강상태 점검	
00:00 ~ 00:30	소통 등 보안상태 점검	
00:30 ~ 05:30	취침	순번에 의한 당직
AM 06:10	전체 기침	
06:10~06:30	아침운동	
06:50~07:10	기숙사 check out 확인	
07:10~07:30	정장 점검 및 침소 상태 확인	

나. 기타 및 참고
(1) Group meeting Report
(2) Daily Floor Report
(3) Personal Report
다. 당직업무
*순번에 의해 AM 00:30~05:30까지 기숙사 보안상태 점검 (주말 1회 당직근무시만 해당)
라. 1층 당당 2층은 매일 운영사무 담당

6. 대우 및 급여
가. 소속 제당 (연11월)
나. 양 캠퍼스 간 업무차량 이용 가능
다. RA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라. 급여: 월 150만원 수준 (coordinator는 별도 계약)

7. 제출서류
가. 입학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A4 용지 2매 이내, 지원동기 및 교육배출을 중심으로 서술

8.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제출기간: 2004. 11. 8 ~ 2004. 11. 19
나. 제출처: 사육생
*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처 학생부(본문 225호)
* 용인캠퍼스: 총무과 기숙사팀(본문 108호)

9.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시험
나. 2차 면접 및 영어 인터뷰

10. 기타문의
· 대외협력처 (Tel. 2173-2063, E-mail: exte@nufs.ac.kr)

2004. 11.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학교장



교원학생수가 @ - 프랑스 상베리 사부아대학교 교원학생 신신희(사양·불어 01양)



▲지난 3월 23, 24일 상베리에서 열렸던 국제문화축제 '투르 뒤 몽드(Tour du monde)'에 참가한 필자(맨위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와 필자가 준비한 한국부스의 모습(아래사진)

환상은 그만! 이제 도전하는 프론티어 정신이다

40도를 웃도는 폭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지난해 유럽남자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작년 여름은 내게도 참으로 유난했던 불볕더위와 함께 한 한 여름이었다. 지난해 7월 6일, 파리 사뮈엘 드골 공항에 도착하여 마주한 파리저녁의 일상은 빠른 발걸음과 교통재정이 공존하는 어느 대도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테레베를 타고 3시간 30분가량 더 가자야 도착한 상베리는 언제가 내 머릿속에 그려본 일그림과 아주 흡사한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 머릿속 베레모를 쓰고 한쪽팔엔 긴 바게트를 끼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 혹은 아침 8시경인데도 느긋하게 커피와 빵과 크로와상을 즐기는 노천카페의 풍경 등을 떠올렸던 때가 있었다. 내가 그리던 프랑스의 모습은 그리했었다.

프랑스 체류증을 받고 학생증을 받아 점심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이곳의 느린 행진차리 때문에 오랜시간을 답답한 심정으로 보낸 걸 이해와 다시 생각해 내 웃음이 난다. 무시간적 여유있게 점심식사를 즐기는 프랑스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동시에 너무도 다디게 처리되는 행정적인 모든일 또한 여유있게 감당해야함을 당부드리고 싶다. 아무튼 그러한 우려교육을 겪어가면서 얻은 학생직으로서 누린 많은 혜택들과 소중한 경험들 중에서도 단 하나

의 진한 기억이 있다면 단연, 국제문화축제에 참가했던 일이다. 투르뒤몽드(Tour du monde, 세계일주)와 이름붙인 이 축제는 2004년 3월 23, 24일 이틀간 상베리마을의 마네주(Manne)라는 행사장에서 6000여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며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금년, 7번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내게 공부했던 상베리 사부아대학교의 교원학생들이 단연 주축이 되어 준비되고 있으며 그 밖에 사부아지역의 국제교류기구 및 교육기관 종사자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매년 이맘때 열리고 있다. 내교 교원학생조합에 참여했던 지난해 9월부터 홍보를 하길 시작하였으나 축제가 있었던 3월까지 겨우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셈이다. 학생참여를 끊임없이 촉구하였던 이 축제는 20여명의 학생들과 조직된 행사지원위원회와 지휘하여 구성되고 준비된다.

외국에 있으면서 '나 라는 코드 아닌 한국인'으로 인식되고 전달되는 상황을 많이 만나서 보았다. 그러한 민낯 속에서 '내가 무난한 한국인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고 내가 소홀히 지나치려던 조국의 문화가 너무 많은 이러한 느꼈은 국제문화축제에 한국부스를 마련하여 구성되고 준비하는 데에 단연 동기부여가 되었음이 사실이다.

일단 방문을 지원 반향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주제와 방향으로 스탠드를 꾸밀 것인지 고려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알리는 생생한 각국의 문화체험'인 만큼 관람객자로 일관하는 것은 일단 보류했다. 나는 다른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 체험하러할 때 어떠한 코스로 좋은 줄을 생각하면서 신선촌문화, 노래방-비디오방-발라드-필름방-PC방 등 각종 '방' 문화, 멀티플레이어게임장소인축을 경험하는 요즘 젊은세대의 여가문화와 서울시대의 공방이라고, 태권도, 한복, 판소리 등의 전통문화소개 그리고 프랑스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이미지 재고를 위해 이들이 들이름 직한 한국 대기업소개, 양식문화의 한화계스타일 수상경력, 건강화제에서 한국영화의 수상경력 등을 소개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의 정치적인 차이와 미국이라는 나라의 열정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지 않은 까닭은 그것이 의미없음이 아니라 이들이 알고 있는 한국이미지의 대부분을 느꼈기에 인식의 향기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이 실현되기까지 교원학생으로 먼저 있었던 선배들의 조언과 상베리에서 여력을 공부하고 있던 다른 많은 한국학생들과 보물간의 막대한 협동작업, 한국 아주머니들이 지원해주신 한국음식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파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열

도 모르는 나 같은 학생의 이메일 지원요청을 받고 비디오자료와 각종 화보와 엽서를 보내주셨던 것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국어로 이들을 염서어 작어주며 간단한 한국말을 알려주었던 너무나 기뻐하던 프랑스 초등학생들께 그들과 준비한 한복과 개량한복을 입고 설명했던 우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이런히 떠오른다.

다양한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을 하며 고국을 떠나서 나의 같은 처지의 다국적 교원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마치 나의 관심영역이 순식간에 넓어지고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순간순간 이어지는 다름과 공통점에 대한 인식과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씩 넓어짐을 경험함으로써 결국 나와 나는 다 같이 존중받으며 함께 공존해야 할 인간이란 존재임을 세상스레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의 휴머니즘과 우리의 인본주의는 글자만 다를 뿐 추구하는 가치의 뿌리는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 모두 이국의 정서와 문화양식을 끊임없이 환상과 거리부기로 마주하길 멈추고 진정 상호이해와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 청년정신, 프론티어정신으로 말이다.

기고 - 이주노동자에 특약봉사한 국제학생회(SO)

자원봉사, 사람·사회·인류를 변화시키는...

자원봉사! 나에게 제2의 인생, 새로운 기쁨을 열어준 활동들이었다. 청소년기의 방황 끝에 나는 1년이 넘게 들어오는 대학을 나의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우여곡절 끝에 들어왔던, 지성인들의 살아남아라 불리는 대학교 남들과 다른,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에 나의 미려한 힘이 누군가에게 한층희 희망의 빛이 되고 힘이 되어 주려고 나는 대학 삼 초기부터 자원봉사를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대학 삼 초기의 자원봉사는 어느 새 내기들처럼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었다. 그러한 무미건조 삶 속에 우연한 기회로 통해 외국어 실력을 늘려보겠다고 봉사했던 많은 국제대회 자원봉사와 한국외국어대 국제학생회 SO 활동들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매번 밝은 미소와 재치로 그들과 함께 한 많은 자원봉사 활동들은 한편으로 내가 대한민국 의 외교사절대사도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만큼 내 자신을 뿌듯하게 해주었다. 그들과 같이 매달 각 나라의 전통 행사와 영화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좁은 시선 속에서 세계화를 동경시하며 서로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어느 날 SO생활 도중 우연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자원봉사 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때 느꼈던 생각들은 나를 어렵게 이끌었다. 타지 생활 속에 힘겹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편견 속에 그들을 막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얼굴이 달아오를 만큼의 창피함이 나를 엄습했다. 열의를 사용하는 서양인 사람들에게는 한 없이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면서도 동양인 등의 제3세계국가 노동자들을 알잖아 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제 보면 또 하나의 해외여행이 나 올림프 등의 국제대회에서 우리가 겪었던 인종차별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았다. 결국 나는 그들에게도 한국 의대 유학생들에게 주었던 특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마음먹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부원의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자원봉사를 한다며 나를 데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었다.

이런 자원봉사를 기획하기 전에도 나는 그들을 향한 인식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대화와 눈빛을 통해 우리가 특같은 친구라는 것을 말로 정황할 수 없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 SO 친구들의 친절에 어색해 하는 표정을 짓다가도 이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친구처럼 장난도 치고 한국 생활의 힘든 점도 말했다.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불법체류자 신분

으로 인해 한국어의 부족으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은 아플 때가 가장 서럽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시작한 것은 매우 필요할까? 이주노동자 부원 외국인노동자의 집을 찾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한국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고민, 여러 민원에 대한 어려운 점 등을 통역해주는 일로 결정했다.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면 한글의 뛰어난 과학성 때문에 자칫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많았다. 한국어실력이 조금은 미흡한 본인들이 한국어에 익숙해지는데 실생활에 사용하는 예문과 상황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가르쳤다. '~하다'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감방을 미리 준비해서 감방을 책 아래로 숨겨 주, 감방을 찾아보라고 해보라고 하고, 숨바꼭질 등을 통해 '사람을 찾다'를 설명하기도 했다.

매번 그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면 다시 한국어를 배우는 것 같았다. 자신의 한국어실력에 새삼 감탄해 했던 기억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노동자 분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미안하게서 오신 노동자분들 경우 항상 성실히 수업에 임하시는 분이었지만 어느 순간까지 그 분이 한글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공공하던 중 익일고우주의 도움으로 인해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소식

을 들을 때면 익일 고우주들이 알아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우리(우리) 일하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운다는 간단한 우리말이 "배지 마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한다. 열정과 언어, 문화가 달라도 특같은 지구촌을 구성하는 똑같은 가족임을 그들이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오도록 하게 된다.

많은 국제대회 자원봉사경력과 국제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자원봉사자를 대표해서 이번 여름에 에베레스트를 현지 생방송을 주자로 활약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를 비롯 유럽의 자원봉사 문화와 함께 참 배울게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이제 더 이상 자원봉사는 "봉사자들이 우월해서 하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삶에 깊숙이 새겨져야 할 사랑과 사회 그리고 인류를 변화시키는 생활인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인류에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만들 것을 확신하며, 세계를 이끌어갈 외재인이자 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멋진 자원봉사를 통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제훈 (영어·영어 02)

내가 담은 세상

사색과는 지난 달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2박 3일간 총남담사를 진행했다. 지난, 28일(목) 총남 송산리 고분군을 견학하고 나오는 정전(이)이 총남 유생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다. 유생의 모습과 정 교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41회 외대문학상 / 21회 외대학술상 공모

20년이 넘도록 당신이 읽은 많은 책들 때문 흥미롭게, 때론 고민하며 밤새워 읽었던 기억들 이제, 그 동안 쌓여온 역량을 외대 학술·문학상에서 마음껏 펼쳐 보십시오

문학상	시(3편 이상)·소설·수필	문의 서울 02-2173-2504 용인 031-330-4112
학술상	희곡·평론 분야	E-mail oedaepress@hanmail.net
마감	인문·사회·자연과학분야 등	유역사항 심사용·보관용 2부씩 제출
	2004년 12월 31일	